국내서 가장 빠른 KTX…광주-서울 '90분대' 주파

●코레일, 신형 고속열차 '청룡' 도입

국내기술로 제작…내달 1일부터 송정역-용산역 일 2회 운행

시속 320㎞…"쾌속·조용" 만족·좌석 간격 확장 등 편의성도 ↑

"좌석도 기존보다 훨씬 넓어지고, 무선충전기 등 편의성도 강화된 것 같아 만족합니다~"

코레일이 광주송정역과 용산역을 90분대에 주파하는 신형 고속열차 '청룡'을 도입,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한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됐으며, 시속 320㎞로 달릴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기존 가장 빠른 열차였던 KTX-산천과 비교했을 때 시간당 약 15㎞ 앞선다.

이에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KTX-산천이 1시간45분 소요됐다면, KTX-청룡은 10여분 줄어든 1시간36분이 걸린다.

동력분산식은 앞뒤에 동력차가 있는 동력집중식의 열차들과 달리 운전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차 6칸에 모두 동력·제동장치가 배치된 것을 말한다.

코레일은 운행에 앞서 사전예약을 통해 국민시승단을 선정,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시승식 이틀째인 25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송정역 3층 대합실은 'KTX-청룡'을 미리 타보기 위해 모여든 이들로 북적였다.

코레일이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하는 가운데 25일 국민시승단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KTX-청룡. /장은정 기자

시승단으로 선정된 314명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관계자들로부터 시승단임을 알리는 목걸이를 받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 탑승장 앞에서 '대국민 시승 열차'라는 현수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열차를 기다렸다.

이내 짙은 푸른색을 띤 KTX-청룡 열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선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차례로 열차에 오른 시승단은 기존 열차들에 비해 넓어진 객실 내부와 좌석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자리마다 설치된 개별창문과 휴대전화 무선충전장치, 콘센트를 보며 "훨씬 편리해졌다"고 호응했다.

실제 열차 내부는 확대됐다. 차체폭 3천150㎜, 좌석 앞뒤 간격 126㎜로 탁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기존 KTX-이음(381석), KTX-산천(379석) 열차 대비 수송 효율이 35%가량 늘어나 총 515명의 승객들이 탑승할 수 있다.

열차 출발 이후엔 KTX 20주년 기념 머그컵·특실다과 등이 제공됐고, 옛 기차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란과 사이다도 배부됐다.

딸 김도아양과 함께 시승단에 참여한 김선재(38)씨는 "평소에도 자주 열차를 이용하곤하는데 이전 열차들보다 좌석은 물론, 좌석간 간격도 훨씬 넓어진 것 같다"며 "또 빠른데 조용해서 만족스럽다.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KTX-청룡은 주중에는 경부·호남고속선 각각 2회씩 운행되며, 주말에는 선로 용량 등을 감안해 2대를 연결한 중련 운행 방식으로 경부고속선에 4회 투입할 계획이다. 요금은 기존의 KTX들과 동일하다.

임석규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다음 달 정식 운행을 시작으로 2027년부턴 17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또한 수원·인천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고속철도 신규 노선 건설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

"수질오염을 막아라"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 방제훈련이 25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 인근에서 실시됐다. 이날 북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직원들이 폐유가 흘러드는 것을 가정,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살포하는 등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승진 청탁' 경찰들 무더기 징역형

전직 3명·현직 5명 중 3명 '실형'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를 통해 드러난 '승진청탁'및'수사기밀누출'전·현직경찰 등연루자모두에게징역형이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감 이모(66)씨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제삼자뇌물교부)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 5명 중 양모(57) 경정은 징역 1년을, 나머지는 징역 6-8개월·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로 "제삼자뇌물교부 혐의 적용자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승진을 위해 각각 1천500만원-3천만원을 이씨 또는 성씨에게 건넸고, 브로커들을 거쳐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별도 기소된 임모(56) 경정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임 경정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주고받은 퇴직 경정 김모(54)씨와 사업가 A(49)씨에겐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심모(57·구속)씨에게 징역 1년과 1천3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

오월단체·시민사회, 5·18 44주년 '함께' 치른다

행사위 불참 선언 하루만에 사과하며 입장 선회…갈등 봉합 기대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오월 공법단체들이 하루 만에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며 시민사회와 함께하기로 뜻을 모아 해묵은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인다.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심려를 끼쳤던 지난 일들에 대해 마음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올해 기념행사부터 시민을 모시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의 내용은 이날 오전 기념재단과 공로자회, 유족회가 연 긴급 회의에서 결의됐다.

부상자회는 회의에 불참했으나, 사전에 두 공법단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회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오월 공법 3단체(부상자·공로자·유족회)가 올해 행사위는 물론, 민간 주도 행사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5·18기념재단이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로 구성된 공법 3단체가 민간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고,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며 기념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 오월 공법 3단체에 대해 행사위는 "감사하다"며 "(행사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 '2·19 대국민 공동선언식'에서 불거진 오월 공법 3단체와 시민사회 간 해묵은 갈등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봉합될 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2·19 대국민 공동선언식은 부상자·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며 진행한 행사였으나 광주·전남지역사회에선 "과도한 당사자주의가 빚은 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상자·공로자회는 수용 대신 독자 노선을 고집했고, 유족회도 두 공법단체가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선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시민사회와 등을 돌려 왔다. /안재영 기자

무안광주고속도로 '10분 간격' 다중 추돌사고…8명 부상

나주 문평3터널서 1차 3중 추돌 이어 2차 6중 추돌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의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 8명이 다쳤다.

25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기동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8분께 나주시 문평면 무안-광주고속도로(무안방면)의 문평3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 급하게 끼어들면서 그 앞·뒤에 있던 차량들과 각각 부딪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터널 내 정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후 12시18분께 A(50대)씨가 몰던 카 캐리어가 앞차량 5대를 들이받는 6중 추돌 사고를 냈다.

10분 간격으로 발생한 1·2차 사고로 총 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돌 차량 운전자 9명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나주=정종환 기자